

논문접수일 : 2013.07.05

심사일 : 2013.07.12

게재확정일 : 2013.07.24

헤어피스를 활용한 꽃의 이미지 헤어핀 제작 연구

A study on fabrication of hairpins with the image of flowers by utilizing
hairpiece

주저자 : 엄성례

서경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학과 박사과정

Eom Seong-Lye

Seokyeo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Beauty Art, PhD program

교신저자 : 김성남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교수

Kim Sung-Nam

Professor, Department of Beauty Art, Seokyeong University

1. 서 론

2. 헤어피스 개념과 활용

- 2.1. 헤어피스
- 2.2. 헤어피스의 활용

3. 헤어핀

- 3.1. 헤어장신구의 역사
- 3.2. 헤어장신의 종류

4. 작품제작

- 4.1. 연꽃의 모양 헤어핀
- 4.2. 장미 모양의 헤어핀

5. 결 론 및 제언

참고문헌

논문요약

헤어피스는 부분가발로 분장용이나 장식용, 위업을 나타내거나 무대용, 연예용, 의례용, 법관용 등 특정 직업용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대개 머리를 감추거나 분장, 장식을 위해 머리에 덧엮어 쓰는 제 머리가 아닌 가짜 머리를 뜻한다.

가발을 사용하는 이유로 개인적 선택인 유전에 의한 탈모 및 심하게 손상된 모발을 커버하거나, 의학 적 선택인 두피 및 모발의 병적 원인 또는 그 외의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이상탈모가 생겼을 경우이다. 또 다른 이유로 패션적인 선택으로 자주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싶거나 특별한 날 장식적인 목적을 위하여 실용적인 스타일의 변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즉 시간적, 경제적인 이유로 스타일 변화가 어려울 때 사용된다.

헤어피스란 짧은 머리를 길어 보이게 하거나 다른 모양·빛깔로 액세서리 효과를 내는 데 쓰는 덧 넣어 땀은 머리로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

처럼 부족한 모발을 보다 풍성히 보이게 하는데 효과적인 헤어 보정장신구이다. 모발과 비슷하여 자연스럽게 연출 되어 그 시장이 탈모시장에서 다양한 스타일 가발시장으로 확대 되고 그 소재가 인모뿐 아니라 합성섬유로 인모와 흡사하고 다양한 색을 표현해 낸다. 이러한 가발 소재의 발달은 무게가 가볍고 가격 또한 인모에 비해 저렴하여 사용하기 쉽도록 제작 개발되고 있다. 모발의 밀도, 모발 술이 적어 무게감이 있는 헤어핀을 하기 어려웠던 분들과 다양한 개인 적 헤어 스타일변화에 하나로 헤어피스를 활용하여 헤어핀제작을 하고자 한다.

헤어피스로 땀은 머리띠나 곱창머리끈, 웨이브나 스트레이트 헤어핀이나 집게 핀 등 다양하게 제작판 매 되고 있고 인모에 염색을 하여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머리꽃이 비녀를 제작연구하기도 한다. 다양한 색감과 아름다운 꽃을 헤어장신구의 소재로 제작연구 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보다 손쉽게 착용하기 쉬운 헤어핀에 헤어피스를 활용하여 아름다운 꽃의 이미지로 헤어핀을 제작연구 하였다.

주제어

헤어피스, 꽃, 헤어핀

Abstract

A hairpiece is a partial wig and it has been used for make-up, decoration, expression of dignity, stages, entertainment, ceremonies, and certain occupations such as judges for a long time. It usually does not mean real hair but fake hair that is put on real hair to hide hair or to do make-up and decoration.

Wigs are used for personal choices to hide hereditary hair loss and severely damaged hair, for medical choices and diseases in hair, and for other health-related reasons to cover abnormal hair loss. They are also used for fashion-related choices to change hair styles frequently, to decorate hair on special occasions, and for practical choices to facilitate to change hair styles. That is, they are used when it is difficult to change hair styles due to constraints of time and money.

As a hairpiece is defined as braided hair to make short hair look longer or to create accessorial effects with another shape and color in Korean dictionary on Naver, it has been used as an effective accessory to supplement a hair style to make insufficient hair look

rich. Its market is expanded from the hair loss market to the partial wig market since it creates a natural hair style as natural hair. Its materials include not only human hair but synthetic fiber which creates diverse colors. As these materials are lightweight and they are cheaper than human hair, wigs are developed and fabricated to be used easily. We intend to fabricate hair pins by utilizing hairpieces for those who could not use weighty hairpins due to their less dense hair and thin hair as a part of diverse hair style changes.

Diverse hairpieces which have been fabricated and sold include braided hairbands, wired hairbands, wavy or straight hairpins, and hair clips. With dyed human hair, beautiful flower shapes are made to fabricate ornamental hairpins. Research has been constantly conducted by utilizing diverse colors and beautiful flowers as materials for hair accessories.

Thus, we aim to fabricate hairpins with the image of beautiful flowers by utilizing hairpieces to hairpins which can be easily put on.

Keyword

hairpiece, flowers, hairpin

1. 서 론

헤어피스는 부분가발로 분장용이나 장식용, 위업을 나타내거나 무대용, 연예용, 의례용, 법관용 등 특정 직업용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대개 머리를 감추거나 분장, 장식을 위해 머리에 덧없어 쓰는 가짜 머리를 뜻한다.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는 오랜 역사를 통해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에서 단순히 기능적인 것에서 시대와 문화에 따른 미의식의 변화로 발달하며 개발되어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디자인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착용되어 왔다. 복식의 추가적 장치로서 기존 가치 외에도 현대인의 정체성과 소통적 기능을 포괄하는 심리적 기제와 사회적 기호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어 오고 있다. 장신구의 종류에는 허리띠, 팔찌, 반지, 귀고리, 목걸이, 노리개, 머리장식품 등이 있다(국립민속박물관 편, 1989). 이 중 머리장식품은 고가의 귀금속을 이용하거나 상징적 디자인으로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현대에 이르러 헤어스타일에 보완과 개성을 연출하는데 있어 다양한 소재와 독특한 디자인들로 여성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다양한 소품시장과 정보로 자작하는 소비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장신구	<p>손희정(2003) 「전통문양의 이미지를 활용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정정은(2011) 「금속과 옷칠을 혼용한 장신구 연구」 오가영(2013) 「섬유로 표현한 현대 장신구에 관한 연구: 작품제작을 중심으로」</p>
모발장신구	<p>이주현(2002) 「귀금속 헤어장신구 디자인 연구: 인터넷 리서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성경희(2002) 「자연염색을 이용한 헤어장신구 개발에 관한 연구」 이미연(2006) 「부바그다아 꽃을 이용한 웨딩헤어장신구 디자인 연구」 신임순(2012) 「원석공예를 이용한 헤어장신구 개발에 관한 연구」 김진숙(2013) 「모발 장신구 개발을 통한 조선시대 고전머리 현대화에 관한 연구」</p>

[표 1] 장신구와 모발 장신구에 대한 선행연구

또한 헤어장신구에 대한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 연구가 위 표와 같이 이어지고 있다. 헤어장식구로는 왕관, 티아라, 비녀, 뒤꽂이, 헤어밴드, 헤어핀, 헤어 클립 등 편리하고 실용적인 착용방법들이 디자인적인 면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가채의 활용뿐 아니라 스타일 가발이나 부분가발이 다양한 컬러로 탈부착이 용이한 헤어피스(부분가발)나 곱창으로 헤어스타일 부분가발로 활용되고 있다.

가발을 사용하게 되는 이유로 개인적 선택인 유전에 의한 탈모 및 심하게 손상된 모발을 커버하거나 의학적 선택인 두피 및 모발의 병적 원인 또는 그 외의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이상탈모가 생겼을 경우 사용한다. 또 다른 이유로 패션적인 선택으로 자주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싶거나 특별한 날 장식적인 목적을 위하여 실용적인 스타일의 변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즉 시간적, 경제적인 이유로 스타일 변화가 어려울 때 사용된다.

헤어피스란 짧은 머리를 길어 보이게 하거나 다른 모양·빛깔로 액세서리 효과를 내는 데 쓰는 덧 넣어 땀은 머리로 네이버 국어사전에 정의하고 있다. 부족한 모발을 보다 풍성히 보이게 하는 데 효과적인 헤어 보정장신구로 사용되어 왔다. 모발과 같아 자연스럽게 연출되어 그 시장이 탈모시장에서 다양한 스타일 가발시장으로 확대 되고 그 소재가 인모뿐 아니라 합성섬유로 인모와 흡사하고 다양한 색을 표현해 낸다. 이런 소재의 발달은 무게가 가볍고 가격 또한 인모에 비해 저렴하여 사용하기 쉽도록 제작 개발되고 있다. 모발의 밀도, 모발 술이 적어 무게감이 있는 헤

어핀을 하기 어려웠던 분들과 다양한 개인적 다양한 헤어 스타일변화에 하나로 헤어피스를 활용하여 헤어핀제작을 하고자 한다.

헤어피스로 뿔은 머리띠나 곱창머리끈, 웨이브나 스트레이트 헤어핀이나 집게 핀 등 다양하게 제작판 매 되고 있고 인모에 염색을 하여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머리꽃이 비녀를 제작연구하기도 한다. 다양한 색깔과 아름다운 꽃을 헤어장신구의 소재로 제작연구 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보다 손쉽게 착용하기 쉬운 헤어핀에 헤어피스를 활용하여 아름다운 꽃의 이미지로 헤어핀을 제작연구 하고자 한다. 헤어장신구 고정방법에는 헤어 띠, 밴드, 클립, 자동 핀, 집게 핀 등의 고정방법들이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헤어장신구 여러 고정방법들 중 가볍게 헤어스타일에 고정할 수 있는 집게핀을 사용 헤어핀을 디자인 하였다. 헤어피스의 발달로 컬러풀한 헤어피스로 뿔기, 꼬기, 겹치기, 매듭, 말기 등의 기술적 방법을 활용하여 디자인 하였다.

2. 헤어피스 개념과 활용

2.1. 헤어피스

역사적으로 B.C 4000년경 고대 이집트인들이 직사광선으로부터 두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처음 사용된 이후 17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장식용 가발(wig)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이원경, 1998). 남의 머리털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머리에 쓰는 물건, 머리에 씌우는 기본 바탕위에 머리털을 심은 것으로 머리 전체에 모자처럼 씌우는 캡 가발(위그 wig)과 두상 일부분에만 사용하는 부분가발(헤어피스 hairpiece)이 있다. 국어 사정의 가발은 (명사로 대머리를 감추거나 분장, 차레를 위하여) 머리위에 덧씌워 쓰는 본래의 자기 머리가 아니까짜머리(참고) 덧머리이고, 영어사전의 가발은 a wig; falsehair; wiggery<총칭> ; toupet(대머리용) 이다(한미란, 2006). 가발은 대체적으로 머리모양을 다양한 스타일과 서양에 고대부터 많이 사용한 장식용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사용되는 분장용, 위엄을 나타낼 때 쓰는 의례용, 법관용, 무대용, 연예용등 특정 직업용으로 사용되는 가짜 모발과 한국에서 사용되었던 가채(다리)을 뜻한다. 요즘 사용되는 가발은 개인의 개성과 특성에 맞게 만드는 맞춤가발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패션가발로 다양하다(이승미 채선숙, 2012).

2.2. 헤어피스의 활용

가발의 종류로 크게 패션용과 탈모용으로 나눌 수

있다. 멋내기 가발은 전두용, 반두용, 액서사리용 등이 있으며 연극용, 마네킹용, 코스프레용 등이 있다.

멋내기 가발은 말 그대로 멋을 내거나 변화된 모습을 위해 사용한다. 여성의 경우 다양한 모습과 개성을 연출하기 위해 때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과 컬러를 가진 가발을 사용하며 여성 탈모자의 경우 남자만큼 많은 탈모가 아니므로 멋내기용 가발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부분적으로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탈모용 가발은 보통 투페(toupet)라 부르며 전두용과 부분용으로 나눌 수 있다. 부분가발의 경우는 개인 마다 탈모의 모양이 다르고 크기와 머리숱의 양도 다르므로 다양한 가발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모 굵기, 모 색깔, 모양의 조절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직업과 나이도 고려하여 제작해야 하며 착용했을 때 누가 보아도 원래 자신의 모발과 같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할 만큼 정교해야 한다(장수만, 2006).

가발의 유형으로 멋 내기를 위한 가발의 유형에는 위그와 헤어피스가 있는데 위그는 두상 전체를 감싸는 형태를 말하며 헤어피스는 두상의 일부를 덮는 형태를 의미한다. 위그는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위그의 선택기준을 보면 탈모면적이 아주 넓은 대머리 유형이나 두피가 심하게 비쳐 보일 정도의 모발 숱이 극히 적은 경우와 같이 커버를 위한 선택과 기존의 헤어스타일에서 전혀 다른 스타일로 변화를 주고 싶을 때의 미적인 선택이 있다. 그리고 장기간의 여행 시 모발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상황에 따른 선택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목적이나 조건에 맞춰 사용되어지고 있다.

헤어피스는 위그와 달리 자신의 헤어스타일에 풍부한 변화를 가능케 함으로서 모임의 성격이나 의상에 맞춰 다양한 변신을 시도 할 수 있게 한다. 헤어피스는 폴(fall), 스위치(switch), 위글렛(wiglet), 캐스케이드(cascade), 치그논(A chignon), 브레이드(braids) 스타일 등이 있다.





[그림 1] 좌 위부터 폴 스위치 위글렛
케스케이드 치그논 브레이드
(출처: 이원경, 1998. 『모발미용학』)

폴(fall)은 짧은 길이의 헤어스타일을 일시적으로 미디어움 또는 롱 헤어스타일로 변화시키고 싶을 때 사용된다. 스위치(switch)는 짧거나 스타일링을 하기 쉽도록 모발의 길이는 대개 20cm 이상이며 1-3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실용적이고 시술이 용이한 것은 3가닥으로 구성된 것이며 이러한 스위치를 이용하여 완성된 형태는 짧거나 늘어뜨리는 스타일로서 여성스러움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 위글렛(wiglet)은 두상의 어느 한 부분에 특별한 효과를 연출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탑(top)부분에 높이와 볼륨을 주기 위하여 곁있는 상태 그대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케스케이드(cascade)는 폭포수처럼 풍성하고 긴 헤어스타일을 원할 때 사용된다. 치그논(A chignon)은 한 가닥으로 길게 땀은 스타일이다. 브레이드(braids)는 모발을 여러 가닥으로 땀은 스타일이다(이원경, 1998).

가발의 소재와 재료로는 인모와 합성섬유로 구분되며 보통 여성이 사용하는 장식용에는 합성섬유 제품이 많고 남성용 가발은 인모를 사용한다. 가발에 사용하는 인모는 건강한 두발에 특수한 방법으로 위생처리와 트리트먼트를 행하여 청결하고 튼튼한 상태로 제조한다. 착용하는 사람의 모발색상, 단단함, 두께 또는 버릇모(kinky, wavy, curly hair)나 축모, 백발이 섞인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자신의 모발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가발을 제작하며 모를 심어 넣는 베이스 소재는 일반적으로 인고 피부라 불리는 폴리우레탄계로 반투명이어서 두피의 색이 비치보일 정도로 극히 얇게 제작한다. 좋은 가발의 조건으로는 자신의 모발과 비슷하여 가발과 모발의 구분이 안 되는 자연스러운 것, 착용했을 때 짓무르거나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으며 쓰고 벗는 것이 간편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최근희 오정은 김동욱, 2001).

3. 헤어핀

3.1. 헤어장신구의 역사

장신구란 신체 일부에 직접 쓰거나 걸거나 또는 끼는 장식품과 의복의 장식을 위해 붙이거나 매거나 또는 늘어뜨리는 소품을 지칭하며 그 외의 장식 목적에 필요한 소구까지를 포함한다(황호근, 1976). 장신구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인간의 태고 때부터 지속되어 온 기본 속성이며 이러한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착용하는 장신구는 신체의 일부에 직접 혹은 의복의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제구로 고대 장신구는 의복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 신체 장식을 통한 미적욕구 충족 뿐 아니라 악령을 쫓는 주술적 의미와 자신을 보화하려는 방어의 도구로도 활용되었으며, 공동생활에 있어 종족 표시나 지배자들의 권력의 상징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계급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변천하여 장신구의 미적가치가 중시됨에 따라 기교와 예술성이 가미되었다(정정은, 2011). 사회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현대의 장신구는 단지 착용자의 치장의 욕구충족 뿐 아니라 작가의 아이디어나 디자인이 더 중요시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전제되고 있다(김정지, 2009). 그 종류에는 허리띠, 팔찌, 반지, 귀고리, 목걸이, 노리개, 머리장식품 등이 있으며 장신구 제작 시 자연재료인 금, 은, 보석류, 나무, 돌, 섬유, 깃털, 뼈 이외에 유리, 합성수지등의 인공합성물질의 발달은 장신구의 재료를 다양하게 만들어 장신구는 이들 재료의 단독 또는 복합사용으로 디자인과 재질감의 특성을 살린 복잡한 표현 양상(김희영, 1978)을 가져오고 있으며 도재, 목재, 플라스틱 등으로 일상생활 속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질감과 형태의 장신구가 탄생되며 자유롭고 다양한 디자인의 장신구가 등장하여 무게, 크기, 착용범위 측면에서 그 범위를 상당히 넓혀가고 있으며 유행에 맞추어 착용 시의 장소, 분위기, 착용자의 감정 등으로 장신구의 장식과 활용은 착용자의 개성미의 표현과 장식욕구의 만족이 결정되어 진다. 현대사회는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개념이 단일 한 개념보다 다양화된 미적 인식으로 변화되면서 현대 장신구 흐름에서 새로운 재료에 대한 실험과 가공된 소재의 변용으로 조형의 효과를 기대한다(여은경, 2012). 현대 장신구는 “ 장신구적인 근간과 하나의 상징적인 역할을 넘어 특성이나 재료, 기술 또는 디자인 어느 것에도 한정되지 않고 하나의 창조적인 예술의 한 분야가 되고 있다(왕기원, 2011).

헤어장신구의 역사를 보면 B.C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사이전 머리핀, 빗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소품들로 보아 원시인들도 머리손질에 관심을 가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석기시대 이전부터 장신구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¹⁾



[그림 2] 수메르, 머리장식 B.C2500
(출처: Francois Boucher)²⁾

3.2. 헤어장신의 종류

머리나 모자를 장식하는 액세서리로 예전에는 모자의 부속품처럼 여겨졌으나 요즘에는 독립적으로도 충분한 패션성을 갖고 있으며 머리형태에 따라 그 소재와 디자인이 다양하다. 작가의 예술적인 표현으로 작품성 높을 헤어 장신구로 가치를 가진다.

집게핀	모발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모발 전체 또는 일부를 잡아서 틀어 올리거나 양쪽 옆머리를 서로 잡아서 뒤의 두상 중간부분에 잡아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머리장신구이다.
헤어밴드	흔히 머리띠라고도 불리는 머리 장식으로 머리의 앞부분이나 모발을 정돈하고 흘러내림을 방지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며, 착용이 간편하여 연령구분 없이 여러 사람들이 선호하는 머리장신구이다.
자동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머리 장신구의 형태로 핀 안에 들어있는 금속의 탄력을 이용하여 잠금 장치의 옆을 눌러 사용한다. 자동핀은 핀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헤어 고무밴드	일반적으로 헤어슈슈라고 부르는 이것은 고무줄의 탄력을 이용하여 머리를 간편하게 정리 해 주는 용도로 가장 흔히 쓰이는 머리장신구 이다.
실핀	구부러진 금속의 탄력을 이용하여 머리의 형태를 유지, 흘러내림을 방지하고 묶은 머리카락의 보조 핀 역할로 많이 사용되는 머리장신구 이다.

[표 2] 헤어장신구종류³⁾

1) Fiel Enterprises Educational Corproation, "Hair dressing," The World book Encyclopedia

2) 출처 : Francois Boucher. 1987

3) 이주현(2002). 「귀금속 헤어장신구 디자인 연구: 인터넷



[그림 3] 헤어장신구 (좌부터 집게핀, 헤어밴드, 자동핀, 헤어고무밴드, 실핀)⁴⁾

4. 작품제작

헤어장신구의 여러 종류 중 착용이 용이 한 집게 핀을 활용하였고 헤어피스를 활용 디자인 하여 일상적인 헤어에 포인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꽃의 어원을 ‘꽃’으로 보고 그것이 종자를 뜻하는 ‘갓’에서 나왔으며, 다시 ‘갓’은 여성을 뜻하는 ‘갓’에서 나왔다고 한다(안영희, 1972). 즉 꽃은 여성을 뜻하며 꽃이 피어 그 꽃이 떨어지면 열매인 씨가 생겨나는 점을 상기해 볼 때 꽃은 재생의 상징성을 담고 있다(김진숙, 2013). 그래서 예로부터 여성 장신구나 일상용품들에서 꽃 자수나 꽃 장식을 이용 머리장신구에도 활용하였다. 이에 형태적으로 어원상 여성을 뜻하는 꽃의 형태를 전체적인 모티브로 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4.1. 연꽃의 모양 헤어핀

연꽃의 상징적 의미는 생명창조, 번영이다. 이를 헤어핀의 모티브로 연꽃을 연상 하며 헤어피스를 사용하여 세 가닥 땅기를 길게 작업하여 끝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고정된 다음 매듭 만들어 연꽃 형태를 만든다.



[그림 4] 연꽃

(출처: 손희정 2003, 「전통문양의 이미지를 활용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작품 1 흰 연꽃은 흰색이 가지는 순수함과 연꽃의

리서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pp.13-15.

4) 이주현(2002). 「귀금속 헤어장신구 디자인 연구: 인터넷 리서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pp.13-15.

상징의 의미를 담았으며, 작품 2 번영은 금색의 헤어피스를 활용하여 매듭을 지어 피어나는 연꽃의 상징적 의미 번영을 표현하였다. 작품 3 연꽃은 흰 헤어피스와 꽃 장식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5] 작품1 흰 연꽃, 작품2 번영, 작품3 연꽃
(좌부터 작품1, 작품2, 작품3)

4.2. 장미 모양의 헤어핀



[그림 6] 장미 (출처: 네이버 . 조경식물도감)

서구세계에서는 거의 문명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장미는 꽃의 대표였고 그 때문에 서구 문학에서는 다층적, 다의적인 상상으로서 널리 이용되었다. 즉, 그것은 미의 화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부의 의미가 교대로 생겨났는데 붉은 장미는 승리를 과시하는 미와 애욕의 여신 비너스(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 로마 신화의 웨누스)와 용이하게 결부되며, 흰 장미는 성모 마리아의 순결과 영적인 사랑을 표시했다.⁵⁾ 작품 4 장미는 꽃 중에 꽃 장미를 핑크색 헤어피스로 꼬아서 세 가닥을 만들 땅기 제작하였다. 작품 5 백장미는 흰색 헤어피스를 세 가닥 땅기를 하여 꽃잎을 펼쳐 표현하였다. 작품 6 꽃은 금색 헤어피스를 백콤 작업을 하여 매듭을 묶어 꼬은 가닥을 연결하여 표면을 둘러 눈꽃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을 표현 하였다. 작품 7 사

5) 네이버 지식백과 종교학대사전, www.naver.com. (2013.0420)

랑은 흰색 헤어피스로 네 가닥 땅기를 핑크색 헤어피스로는 세 가닥 땅기를 하여 순수함이 장미를 감싸고 있는 사랑을 표현 하였다.



[그림 7] 작품4 장미, 작품5 백장미
(좌부터 작품4,작품5)



[그림 8] 작품6 꽃, 작품7 사랑 (좌부터 작품6,작품7)

5. 결론 및 제언

장신구는 시대를 거쳐 다양한 개인의 취향과 자유로운 개성표현으로 완성된 패션의 일부로 크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헤어장신구로도 포인트 스타일링하기에 충분하여 많은 여성들이 활용하는 아이템 이다. 소재의 발달로 다양하게 진화해 가고 있으나 본 연구는 연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헤어 장신구에 초점을 맞추어 헤어피스를 활용하여 헤어핀을 중심으로 제작하였다. 헤어피스를 활용하여 제작한 헤어장신구는 전통적 장신구와 다르게 꽃모양을 모티브로 응용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헤어 장신구의 모티브를 여성을 뜻하는 꽃으로 하여 형태를 땅기, 꼬기, 겹치기, 매듭, 말기 등 기술적인 방법으로 헤어피스를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창작활동을 하는 헤어디자이너들이 미술이나 예술적인 감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개발하여 헤어스타일에 국한되어 권태로운 일상을 깨고 고객 만족의 한 부분으로 직접 디자인한 헤어핀을 선물한다면 깊은 인상과 함께 차별화된 마케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다양한 컬러풀한 헤어피스를 사용하지 않고 흰색 핑크색 금색의 한정된 색을 활용하고 디자인 또한 여성적인 꽃에 국한 되어 표현하였으나 선배님들은 다양하고 활발한 작품 활동을 바란다. 또한 헤어피스를 사용하여 헤어핀 중심으로 디자인 하였으나 커트 시 버려지는 폐모발도 활용하여 예술적 작품이나 실용적이고 일상에 이용되는 소품에 사용범위를 넓혀 현대적인 다양한 디자인개발로 한국 미용계의 발전을 기대 한다.

참고문헌

- 이원경 (1998). 『 모발미용학 』. 서울 : 청구문화사.
- 최근희 오경은 김동욱 (2001). 『 모발관리 이론 및 실습 』. 서울 : 수문사.
- 조성옥 강덕녀 김현미 김윤선 이인희(2011). 『 고전으로 본 전통머리 』. 서울 : 광문각.
- 이승미 채선숙 (2012). 『 가모 관리학 Wig 』. 서울: 경춘사.
- 김진숙 (2013). 「모발 장신구 개발을 통한 조선시대 고전머리 현대화에 관한 연구」, 영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임순 (2012). 「원석공예를 이용한 헤어장신구 개발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여은경 (2012). 「현대장신구의 물성과 자연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가영 (2013). 「섬유로 표현한 현대 장신구에 관한 연구: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은 (2011). 「금속과 옷칠을 혼용한 장신구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경희 (2002). 「자연염색을 이용한 헤어장신구 개발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현 (2002). 「귀금속 헤어장신구 디자인 연구: 인터넷 리서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희정 (2003). 「전통문양의 이미지를 활용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연 (2006). 「부바그다야 꽃을 이용한 웨딩헤어장신구 디자인 연구」, 서울산업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수만 (2006). 「미용학적 접근에 의한 탈모 및 가발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석사학위논문.
- 한미란 (2006). 「시대적 배경에 따른 가발의 변천과 현대의 사용되는 특징 연구」, 남부대학교 산업정책대학원 향장미용학 석사학위논문.
- 이종숙 (2010). 「업스타일 시술시 헤어피스 활용도에 관한 연구 : 짧은 모발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영 (2009). 「조선시대 여성장신구에 나타난 문양연구: 머리장신구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옥련 이행화 장영선 (2011). 근세 한일여성의 계급별 두발장신구 고찰. 『일본근대학연구』, 33.